

불 나도 소방차 못가는 사찰 849곳

사적지 등에 소방차 필수·보험 가입 의무화해야 전국 목조문화재 3303개중 소화전 설비 139곳 '화재에 노출된 목조문화재...' 세미나

한번 훼손된 문화재는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복원한다 해도 이전의 진품과는 같을 수 없다. 더욱이 화재에 노출된 목조문화재의 사실은 역사의 흔적마저 잃게 하고 있다. 전국 목조문화재 3303개소 가운데 사찰 건축물은 1960개소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낙산사 화재사건은 화재에 노출된 목조문화재의 심각한 피해 현상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9월 5일 국회도서관 세미나실에서 현장 실무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목조문화재를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씨피엔문화재방송국이 주관하고 한나라당 정병국의원실이 주최한 '화재에 노출된 목조문화재- 화재 방지 시스템은 없는가' 세미나가 그것이다.

이날 정병국 의원은 "지난해의 낙산사 문화재 소실에 이어 올해 세계문화유산인 화성 서장대와 창경궁 문정전이 산불과 방화로 소실됐다"며 "목조문화재를 화재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재 노력이 절실하며 화재 예방활동이 그 어떤 노력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은

"목조문화재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통합적 시스템 구축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중요 문화재가 있는 궁궐이나 사적지에는 작은(1t, 1.5t)소방차와 자체 소방대가 있어야 하며 보험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체계적인 화재 진압 훈련과 경보장치와 CCTV 등의 예방시스템 마련, 사찰 주변 소방청의 체계적 훈련지원 및 재난 억제 매뉴얼 제공 등을 근본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황 소장은 현재 사용중인 소화기와 진압방식, 비용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화재 초기 진압시 가장 많이 쓰이는 분말형 또는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화재 진압 후 분말 찌꺼기로 문화재에 2차 훼손을 진행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정소화기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진압방식에 대해서도 높은 압력으로 목조물에 2차 훼손을 가속시킬 수 있는 '직접고압분사' 방식이 아닌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리는 '스프링클러' 방식의 화재 진압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황 소장은 "화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철저히 분석해 전 과정을 매뉴얼로 만들고 이를 토대로 다른 목조건축물의 화재 대응용 자료를 만드는 연구작업은



'화재에 노출된 목조문화재- 화재 방지 시스템은 없는가' 세미나. 왼쪽부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 문화방송 서민수 기자, 강원대 백민호 교수, 문화재청 김상구 건축과과장.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무명 문화재관리를 위해 간접화제지원방식 등의 새로운 지원방안을 고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씨피엔문화재방송국 이재호 국장은 목조문화재 방재 시설 현황에 대해 "사찰 1960개소 가운데 화재 발생시 소방차량 진입이 곤란한 사찰이 849개소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 전국 목조문화재 3303개소 가운데 소화전 설비가 된 곳이 139곳에 불과하다"고 밝혀 현재 목조문화재 방재 시설이 얼마나 미비한지를 설명했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news.com

봉은사 가람배치 등 연구 한국불교미술사연구소 세미나

한국불교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는 9월 9일 동국대 문화관에서 '봉은사의 가람배치와 불교미술의 새로운 조명'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원광대 김정희 교수는 논문을 통해 "봉은사 불화는 18세기후반~19세기 말의 서울, 경기지역 불화의 양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봉은사 불화에 참여한 화승은 경반 응석·영명 천기·김곡 영환 등 당대 최고의 화승 70여 명이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봉은사에 봉안되어 있는 불화는 14종 17점으로 대웅전과 영산전, 북극보전, 판전 등에 각각 소장돼 있고 시왕도 2폭(1777년 作)은 현재 동국대 박물관에 소장돼 있으며 현왕도(1844년 作)와 지장시왕도, 시왕도(1955년 作)는 2002년 명부전 화재로 모두 소실됐다"고 밝혔다.

이날대회에서는 '봉은사의 불화' 명지대 김홍식 교수의 '봉은사의 가람 배치' 한국전통문화학교 김동현 교수의 '봉은사의 건축' 등의 논문이 발표됐다.

한편 한국불교미술사연구소는 최근 동국대 문명대 교수의 정년퇴임 기념논문집 <미술사의 작가와 유파 I·II>를 출간했다. <미술사의 작가와 유파 I·II>에는 일본 무사시노대 박영국 교수의 '인도 요르탄 지역 팔대보살의 성립과 도상 전개' 등을 비롯해 조각·건축·공예·회화 관련논문 40여편이 실려 있다.

노병철 기자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63>

인드라망

산사에서 불자들이 조석으로 드리는 예불문에 '지심귀명례 시방삼세 제망찰해 상주일체 불타야중'이 있다. 마음을 다해서 시공 모두에 가득 찬 부처님께 귀의한다 라는 표현이다. 여기서 제망찰해는 인드라망의 번역이다. 원래 인드라는 인도사람들이 좋아하는 수 많은 신 중의 하나인 제석천왕이다.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가호하는 신으로 해석되고 있다. 제석천왕전에 드리워진 구슬코마다 구슬이 있는데 이 구슬이 서로 서로를 비추면 우주 삼라만상을 비추는 모습이다. 이러한 인드라망을 부처님께서 화엄사상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요즈음 말로 번역을 해 보면, 우주 삼라만상(생명, 무생명, 유기물, 무기물

게 가르쳐주고 있다. 사물을 관찰하는 사람이 그 사물의 존재여부에 관여한다는 것이다. 내가 관찰해야만 관찰하려는 사물의 의미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관찰자와 사물이 같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얽혀있는 것이다. 내가 있던 없든 우주는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은 양자역학적인 사실과는 대치되는 틀린 상식이라는 점이다.

이는 당시 서양 과학자들이 양자역학의 반대편에 서도록 하는 단초를 제공했지만, 지금 많은 관찰과 실험은 양자역학의 세계관에게 손을 들어주고 있다.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은 이러한 세계관을 '일체유심조' 즉,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든 것이라는(관찰하려는 의도가 마음에서 나왔으며

만물은 개체이면서 전체...서로에게 영향 줌 관찰자와 대상 '따로' 아닌 관계일때 소통 가능

에 이르기까지)이 서로 다른 것과 떨어져서 개체성을 발하고 있지만, 사실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동쪽은 서쪽에, 시간은 공간에, 물질은 에너지에, 무생물은 생물에, 유기물은 무기물에, 서로 비추어 빛을 내는 인드라망의 구슬과같이 말이다.

이러한 사상은 20세기 양자역학과 상대성을 발견한 과학자, 그리고 무한을 탐구하는 수학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 서로 관련이 없는 듯이 보이는 태양의 움직임, 아침마다 만나는 지하철의 사람들, 발에 걸리는 풀부리, 가을 들녘의 코스모스에 이르기까지 나와 관련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드라망은 가르쳐 주고 있다. 가끔 내가 조그맣고 보잘 것 없는 존재로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러나, 양자역학은 정반대를 우리에게

로) 부처님의 가르침과 비유하기도 한다.

또한 컴퓨터 과학자들은 이러한 인드라망의 구슬을 하드웨어, 이 구슬이 서로 비추는 방법을 소프트웨어에 비유하기도 한다. 그리고 인드라망에 얽힌 하나의 인연법칙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무아를 체득하는 것이라고 한다. 개체성과 전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본래 나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백암록>에서 더위를 피하려던, 더위가 나를 죽이는 곳으로 가자한다는 말이 있다. 더위가 한 풀 꺾인 가을 초입, 가끔은 성장을 멈추고 다음 생을 준비하는 자연과 같이 가만히 인드라망에 얽힌 우주의 인연과 다르지 않은 나를 관찰하도록 하라.

서울대 전기공학부



"진표·진묵 스님 '모악산 불심'의 핵심"

정문 교수, 두 스님의 민중교화 방편 등 집중분석

'후천개벽의 성지' '미륵신앙의 본산' 등으로 일컬어지는 김제 모악산은 우리나라의 종교집합소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도 이곳은 '깨달음'과 '신 내림' 등을 염원하는 사람들과 정제불명의 종교인들이 모여 있다.

하지만 이 신앙의 정점이 불교가 있고 그 핵심적 역할을 한 사람이 진표율사(713~?)와 진묵대사(1562~1633)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흔치 않다. 전북대 철학과 정문 교수(사진)는 최

근 '모악산과 불교-진표율사와 진묵대사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논문을 발표해 미륵신앙을 통한 진표율사와 진묵대사의 교화 방법과 미륵신앙의 사회성에 대해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정 교수는 논문을 통해 "진표의 망신 참회는 무아를 체득하기 위한 우선적 방편이었다"며 "여타의 미륵신앙이 경배와 기복을 강요하는 반면 진표의 미륵신앙은 각자의 죄업을 철저히 참회하는 과정을 거친 후 수행을 통해 선정과 지혜



를 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또 "진표는 점철법을 통해 당시의 민중을 참회의 길로 유도했으며 교화의 범위도 교외로 넓혀 버텨나 백제와 고구려의 유민들이 살고 있는 소외된 지역까지 미쳤다"고 밝혔다. 한편 정 교수는 도교와 유가사상을 불교적 색채와 가미시킨 진묵대사의 시 '천금지석'을 예로 들며 진묵대사의 민중 교화를 위한 방편적 접근도 설명했다.

노병철 기자

(불자정보)

- 규격: 5 x 5cm = 50,000원
- 계좌: 농협 053-01-227471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02) 2004-8213~6 (02) 732-1522 (통)
- 전송: (02) 737-0696
- e-mail: jabi1522@empal.com

조그만안자안내

- 위치: 대구시 달성군 논공 100평
- 법당 25평, 중부실, 향토방 7평, 석불, 석담, 석등, 단청
- 가액: 시설비 3000만원 일년세 150만원
- 사용무제한가능 대구중심 30분 소요

010-2800-4962

안자안내

- 위치: 경남 하동
- 대지: 약 800평
- 법당 32평, 요사채 2채 큰 창고, 주차시설 완비 관상용 양어장
- 비구니스님 기도처
- 가액: 2억 3천만원

055)883-8846
010-8564-0302

사찰 (금) 안내

- 위치: 영천·건천 IC에서 20분
- 종교부지 350평, 임야(뒷산) 대웅전 10평, 요사채 30평 산신각, 용왕당, 집기비품 등
- 가액: 1억 5천만원(절충가능)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랍니다

016-831-3022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
- 실평수 65평, 법당 특 A 시설 방 3, 공양간(특 A 시설)
- 시설비: 답사후 결정
- 가액: 전세 2000만원 월 115만원 즉시 법회 가능

018-632-2009

사찰안내

- 위치: 경기도 포천시
- 부지: 1300평
- 건평 53평, 25평, 17평 세동
- 가액: 3억 8천만원 산세수려한 청정지역

010-3929-1113

사찰안내

- 위치: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장산리
- 법당 25평, 요사채 30평
- 총부지 560평 아담한 사찰
- 가액: 1억 6천 8백만원

055)674-8089
011-9232-6424

사찰안내

- 위치: 전남 광주 근교
- 500여평 사용 (무상임대)
- 건물: 법당 1동 20평, 방 3개
- 특징: 약 70여년 된 (임야: 4700여평 매입 수용가능하며 실바타운, 남골담 적지라 생각됨)
- 가액: 9500만원

011-288-6668

사찰안내

- 위치: 충북진천 IC에서 10분거리 서울중부고속도로 IC 1시간 거리
- 총평수: 550평종종교부지 300평
- 건물: 요사채 겸 법당 40평
- 가액: 2억 3천만원
- 특징: 주차완비, 안정된 곳

010-2333-3638

포교당안내

- 위치: 경남 삼천포
- 상가건물 3층 3층
- 평수 40평
- 법당, 방 2개, 주방
- 보증금 500만원, 월 15만원
- 시설비 집기일체 1000만원

010-2655-3494

사찰안내

- 위치: 합천군 상가면
- 대지: 240평
- 법당: 25평
- 요사 3채, 산신각, 용왕전 모셔져 있음
- 가액: 2억

011-9571-1710

사찰안내

- 위치: 부산 석대도심 속산사 주위경관 수려
- 지하철역(2007년 완공예정) 지하철역에서 5분 거리
- 가액: 전세 5000만원
- 시설비: 1200만원

011-872-2532

멋진밀양사찰안내

- 위치: 부산 대구 신고속도로 밀양 IC에서 6분거리 연양 울산 30분
- 대지: 514평
- 1층 요사채 70평, 2층 법당 20평
- 산신각, 일천관음등 및 연등 법당 잘 꾸며져 있음
- 향토집 2채 20평
- 주차 15대 법당 뒤 대밭 조성되어 있음 대지 전체 돌담되어 있음
- 가액: 3억 8천만원

작은 암자 및 부동산 교환가능
현금 매입시에는 대폭 조절가능

010-5572-1501

법회 참석 대중의 일체감과 효율성을 높이는 필수 교보재

법요집 · 기초교리집 패드

특별한경 보급!!

정기법회, 수련대회, 불교대학, 불교학교 등 법당에 걸어 비치만하셔도 법회의 원활한 진행은 물론 신도님들의 불교기초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초교리

- 정법가
- 사용서원
- 찬양본
- 법문
- 산회가
- 반야심경
- 경구
- 기타찬불가
- 입정
- 발원 및 축원

기초교리

1. 불교란?
2. 부처란?
3. 대승과 소승의 차이
4. 사찰에서 쓰는 도구
5. 사찰경내 예법
6. 화장과 반배
7. 고두레
8. 예불문
9. 삼부
10. 삼귀의
11. 삼법인
12. 삼업
13. 삼학
14. 삼도계
15. 사선법
16. 사선법
17. 십이인연
18. 육바라밀
19. 팔정도
20. 보양삼매론

특별보급가: 140,000원 (한정수량판매)
40쪽, 아이보리색 레저크지
구성: 패드(법요집, 기초교리, 양면인쇄) 1개, 걸이대, 지시봉

인터넷 불교 종합 서점
여시아문 02)737-0695
02)2004-8219, 8220
국내-해외불교서적, 고당도서 http://www.yosiamun.com